

한국 서양과학사 연구와 교육, 그 관계 맺기의 정체성: 『한국과학사학회지』 분석을 중심으로

이두갑†

1. 들어가며

이 글은 2020년 한국과학사학회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를 되돌아보고,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 서양과학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중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는 특히 한국에서 서양과학사를 교육,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국의 과학사 학계 전반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서양과학사에 대한 한국 사회와 대중의 요구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선 이 짧은 글을 통해서 과학사학회 내에서 서양과학사 분야가 그동안 이룩한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온전하게 돌아보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서양과학사의 정체성이 학계와 사회,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맺기 방식에 의해 형성되어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과학사학회가 출간하는 학술지이자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관련 연구가 게재되는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동양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서양’ 과학사를 연구해온 지난 한국과학사학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 연구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물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를 정의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0.42.3.695>

† 서울대학교, doogab@snu.ac.kr

하고 이러한 연구를 서양과학사로 따로 분류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에 가깝고, 현재 이슬람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비서구 문화권에 대한 과학사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확장된 ‘서양’ 과학사의 정체성을 새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성찰보다는 서양과학사가 한국 학계와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에 더 초점을 둘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학사학회 내에서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2. 국내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는 박익수, 송상용, 박성래 등 초기 과학사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양대의 박익수는 1959년 『신과학사개론』을 출판하여 과학의 역사를 통해 이의 사회적, 철학적 함의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1960년 한국과학사학회의 창립에 참여하기도 했다.² 송상용은 유학 후 1969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여러 대학에서 과학사와 과학혁명에 관한 수업들을 개설하여 학부와 대학원 수준에서 본격적인 서양과학사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한 1980년 서양과학사 뿐만 아니라 기술사, 과학철학에 대해 자신이 쓴 글들과 번역한 글을 편집한 『과학사 중심 교양과학』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이 분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³ 박성래는 서양과학이 한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1986년 서양과학사 통사인 스티븐 메이슨의 책 『과학의 역사』를 번역하여 교양과학사 수업에서 인

1 아프리카, 이슬람,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비서구’ 지역의 최근 과학사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Helen Tilly, *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Marwa Elshakry, *Reading Darwin in Arabic, 186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Gabriela Soto Laveaga, *Jungle Laboratories: Mexican Peasants, National Projects, and the Making of the Pil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2 송상용, “한국 과학기술학의 선구자, 소민 박익수 (1924-2006)”, 『과학과 기술』 40:1 (2007), 108.

3 홍성욱, “한국 과학사학계와 송상용 선생님”, 『한국과학사학회지』 24:2 (2002), 97-101

기 있는 교재로 활용되며 대중의 과학사 이해를 증진시켰다.⁴

보다 본격적인 서양과학사 연구와 교육은 1983년 서울대에서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과정(이하 과사철)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정 설립자인 김영식은 우선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를 한국에서 과학사의 독자적 학문 기반을 쌓고 창의적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했다. 즉 서양과학사는 한국에서 과학사 연구의 준거틀로서 그 일차적 기능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서양과학사 통사 수업을 1년에 걸쳐 수강하도록 과학사통론 1,2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고, 그 설립 초기에는 서양과학사 주제들로만 석사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는 것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과사철은 미국의 여러 대학들—하버드, 프린스턴, 존스홉킨스 대학 등—의 강의 계획서에 기반하여 과학사 교육을 수행하였고, 박사논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논문자격시험의 문제들도 이들 학교들에서 차용하여 실시하였다.⁵ 특히 1990년대 초 하버드대 과학사학과에서 수학 중이던 김동원은 논문을 마무리하던 시기에 서울대에서 서양과학사의 다양한 측면들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최근 경향들을 논의하는 교과목들을 개설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여건이 되면 직접 관련 분야의 교수나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 대학들에 방문 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초기 한국과학사학회에서 발표되거나 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서양과학사 논문은 서울대 과사철의 석사, 박사논문들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과학사학회지 창간호인 1979년 1호에 총 5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는 박성래의 논문을 그 대표로 하여 모두 한국과학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 후 1986년 8권 즈음에 과사철 1회 졸업생들의 논문이 과학사학회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정명식의 윌리엄 길버트에 관한 논문이나 홍성욱의 마이클 패러데이에 관한 논문이 그것이다.⁶ 그 이후 과사철은 설립 초기 1980-90년대 중반까지도 석사논문의 경우 대부분 서양과학사에 관한 것이었고, 그 결과 학회에서 발표된 많은 서양과학사 논문들은 과사철 학생들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 이외에 유학을 가 있거나 혹은

4 신동원, “박성래 선생님과 한국과학사”, 『한국과학사학회지』 26:2 (2004), 131-138.

5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발간, 『과사철 협동과정 30주년을 돌아보며, 1984-2014』 (2014), <https://phps.snu.ac.kr/ver3/papers/2784616> (2020년 10월 접속).

6 정명식, “De magnete에 나타난 William Gilbert의 자기철학의 구조와 성격”, 『한국과학사학회지』 8:1 (1986), 30-47; 홍성욱, “Michael Faraday에 있어서 자기력선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8:1 (1986), 48-70.

유학 후 귀국한 학자들이 학회에서 논문들을 발표하고 이 중 일부가 과학사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일례로 1986년 8권에 실린 당시 오콜라호마대 박사 과정 김기운의 퀴비에의 화석의 자연사에 대한 논문을 들 수 있다.⁷ 특이한 것은 당시 과학자로서 과사철에서 수업을 들으며 서양과학사 연구에 관심을 발전시키던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이 중 김명자는 그리스 의술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⁸

1986년 이후 과사철에서 본격적으로 서양과학사 교육을 받은 연구자가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 과학사학회에서 발표되었거나 과학사학회지에 출판된 논문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개별 분과학문 내에서 특정 과학의 개념적 변화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16-7세기 과학혁명기에 나타난 천문학에서의 혁명이나 물리학에서 운동과 역학 개념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의 등장에 주목하며 커다란 학문적 성과들을 거두었던 서구 학계의 초기 과학사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과학혁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영미 과학사 분야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집대성해 1984년 출판된 김영식의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출현과 그 배경』 또한 초기 국내 서양과학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⁹ 1987년 9권에 실린 해론의 뉴메티카에 대한 성영곤의 연구, 스티븐 헤일스의 식물 호흡에 대한 송위진의 논문, 그리고 운동 개념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임경순의 논문 등이 이러한 초기 서양과학사 연구의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⁰

1990년대 이후부터 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서양과학사 논문들은 이러한 과학 내부의 이론적 변화를 보다 폭넓은 당대의 문화적, 정치제도적,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려 노력했다. 이는 내적, 외적 과학사로 과학사를 구분했던 기존의 과학사 학계의 흐름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7 김기운, “퀴비에까지의 화석의 자연사”, 『한국과학사학회지』 8:1 (1986), 71-81.

8 김명자, “그리스 의술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와 생물학적 성격 -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이르기까지”, 『한국과학사학회지』 8:1 (1986), 82-98.

9 김영식,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출현과 그 배경』 (민음사, 1984)

10 성영곤, “알렉산드리아 응용역학의 성격 - 해론의 Pneumatika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9:1 (1987), 3-28; 송위진, “Stephen Hales의 Vegetable Statics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9:1 (1987), 29-45; 임경순 “Francis Bacon의 자연철학에 있어서의 ‘운동’ 개념의 위치와 성격”, 『한국과학사학회지』 9:1 (1987), 46-68.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사학회지에 실린 김동원의 영국 캐번디쉬 연구소의 제도화에 대한 논문, 박영옥의 윌리엄 버클랜드의 지질학과 자연신학의 관계에 대한 논문, 그리고 1994년 출판된 송성수의 테일러리즘에 대한 논문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¹¹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과학사 학계에서도 점차 과학의 제도적, 사회적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서구 과학사학계에서 1980년대 중엽에서 1990년말에 걸쳐 역사학적 사회학(historical sociology)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기반한 사회구성주의적 과학사 연구들이 점차 성장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

1990년대 중엽에서 2000년대 초는 과학계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과학의 객관성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나타난 과학전쟁으로 인해 과학 사상과 이론에 대한 분석보다는 과학의 물질문화와 실험실에서의 실천에서부터 과학적 수사와 전략에 이르는 과학적 실천(scientific practices)에 대한 분석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서구과학사학계에서 벌어졌던 과학전쟁에 대한 홍성옥의 종설은 당시 과학사의 방법과 목적을 둘러싸고 과학계와 대립했던 일군의 과학학 연구들을 다루었으며, 과학사와 기술사의 교차점, 물리학의 공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의 연구는 과학적 실천과 기기의 역할을 강조했던 1990년대 말의 서양과학사의 연구 경향에 대한 좋은 소개를 제공해 주었다.¹³

한편 해외 과학사학계에서 논의된 과학사의 방법론적 변화나 과학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의 변화보다 사실상 서구과학사학계에서 일어난 더 큰 관심사의 전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과학과

¹¹ 김동원, “맥스웰 시기의 캐번디쉬 연구소(1871-79)”, 『한국과학사학회지』 12:1 (1990), 70-105; 박영옥, “William Buckland(1784-1856)의 Geology and Mineralogy: 자연신학과 지사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2:1 (1990), 20-43; 송성수, “테일러리즘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술의 위치”, 『한국과학사학회지』 16:1 (1994), 66-101.

¹² 구성주의 과학사에 대한 리뷰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an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Constructiv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¹³ 홍성옥, “싸이모미터(cymometer)를 통해 고찰한 과학 기기와 실험적 실천의 관계”, 『한국과학사학회지』 16:2 (1994), 233-249; 홍성옥, “종설: 누가 과학을 두려워하는가? 최근 ‘과학 전쟁’(Science Wars)의 배경과 그 논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19:2 (1997), 151-179.

젠더(gender) 그리고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그 무엇보다 고조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서구 과학사학계에서 몸과 젠더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 경우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서양과학사 논문 가운데 김명자의 1986년 논문을 제외하고는 그 논의가 많지 않았다. 그에 비해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과학사학회지에서도 점차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김기운의 생태학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한 논문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실린 이종민의 논문은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 나타난 규제과학과 공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활동을 잘 분석하고 있다.¹⁴

2000년대 이후 서양과학사의 큰 변화는 무엇보다 20세기 생물학과 생의학(biomedical research) 역사 분야의 약진이라고 할 만하다. 마침 1990년대 말에 귀국한 김기운은 서양 생물학과 환경사, 그리고 인간과학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지식과 헌신적 교육으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서양과학사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서양과학사를 전공하거나 이를 위해 도미한 일군의 유학생들은 이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2013년 과학사학회지에 발표된 이두갑의 논문은 서구 과학사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미국의 생물학과 생의학의 역사와 함께 20세기 유전공학의 등장, 과학과 대학 연구의 상업화로 인한 과학자 정체성의 변화와 연구 윤리의 문제 등에 관련된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¹⁵ 또한 같은 이슈에 실린 박형욱의 노화 연구에 대한 논문은 과학사, 의학사의 전통적인 분리를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생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세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질병과 몸, 노화의 개념들의 특징과 그 함의를 성공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14 김기운, “생태학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24:1 (2002), 40-56; 이종민, “환경 연구와 기술 규제, 의도된 긴장과 전략적 공존, 1969-1973: 미국 환경 보호청(U.S. EPA)의 설립과 연방 환경 연구 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7:3 (2015), 623-652.

15 이두갑, “아서 콘버그의 DNA 연구와 공동체적 구조의 건설”, 『한국과학사학회지』 35:1 (2013), 131-149.

16 박형욱, “네이던 샵, 노화학, 그리고 노화의 생의료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5:1 (2013),

한편으로 과학사학회지의 기획 이슈들은 서양과학사의 주요 논의들에 기반하여 한국과학사학계의 주요 서양과학사 연구자들이 학술적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했다. 2013년 기획 논문은 제도로서의 과학의 정착 과정에 대한 과학사학계의 분석에 대한 리뷰에서 시작하여 개별 분과나 연구소와 같은 구체적 제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⁷ 사회과학의 역사에 대한 서양사학계의 연구에 기반하여 지성사로서의 과학사를 확장하려고 한 시도였던 2016년 기획 논문들은 과학사가 자연과학의 개별 분과에 대한 분석을 넘어 그 논의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⁸ 최근 과학기술과 전쟁의 상호관계라는 기획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하나의 분석틀을 통해 수학과 의학, 물리학 영역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시도라고 하겠다.¹⁹ 이들 기획 논문들은 과학사학회에서 먼저 발표되어 토론을 거친 후 저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과학사의 주요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토론과 공동연구를 거친 후 출판되어 학문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관계맺기

지금까지 저자는 한국 서양과학사 교육의 모습, 그리고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서양과학사 논문들이 보여준 연구 주제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서양과학사가 한국에서 과학사 교육과 독자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 서양과학사의 핵심 연구 주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틀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무엇보다 서양에서 나타난 근대성, 특히 근대과학의 등장과 그 변화 과정, 근대국가의 통치

151-168.

¹⁷ 박범순, “역사 속의 인스티튜션 빌더(Institution Builders in History)”, 『한국과학사학회지』 35:1 (2013), 105-129.

¹⁸ 김상현, “기획: 지성사, 관념사에서 ‘사회 과학의 역사’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8:1 (2016), 151-158.

¹⁹ 박민아, “기획: 전쟁과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41:1 (2019), 33-37.

(governance)와 제국주의적 팽창에서의 과학의 역할, 인간 소외(alienation)와 노동, 환경문제와 같은 과학의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의 산업적 이용과 혁신, 경제성장과 관련된 과학정책적 문제들과 같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서양과학사를 학문적으로 성숙시켰던 17세기 근대 과학혁명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그리고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과학지식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는 작업의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동양에서 어떻게 서양 과학을 수용했는지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서구 제국의 확장에서 과학기술과 의학의 역할에 관련된 논의들은 조선, 개항기, 그리고 일제 식민주의 시기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학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비-서구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고유의 경험에 대해 주목한 한국과학사 연구들은 서구 과학사 학계의 과학과 제국주의 논의를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²⁰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가 뒤늦은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서양과학사 연구들을 추동한 핵심적 문제의식들이 중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18세기 계몽사조기 이후 과학과 통치의 문제, 19세기 산업혁명과 과학의 산업적 이용, 그리고 20세기 거대과학의 등장과 대학과 기업의 관계 변화를 동반한 과학의 상업화 등의 주제에 관한 논의들은 한국에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를 추구하며 나타났던 과학과 정치의 관계,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도구화와 같은 특징들,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국가주도 과학기술 연구체제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주었다.²¹ 즉 이러한 서양과학사 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서양의 경험과 공유하는 것은 무엇이고 반면 그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준거틀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은경, 송성수와 같이 서양과학기술사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한국에서의 여성과학자의 지위와 역할, 기술혁신정책 등으로 학문적 관심사를 전환한 이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보다 잘 보여준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동양, 한국과학사를 주제로 『한국과학사학회지』를 비롯한 여러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보여주지만 이 글이 서양과학

²⁰ 이정,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일제강점기 조선의 향토적 식물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265-298.

²¹ Sang-Hyun Kim, “Science, Technology, and the Imaginaries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6:2 (2017): 341-371;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 체제의 형성과 발전”, 『한국과학사학회지』 38:3 (2016), 453-483.

사에 대한 것이기에 자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서양과학사 연구자가 많지 않으며, 사료에의 접근 등의 문제로 연구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았던 한국과학사학회에서 특히 『한국과학사학회지』의 종설(리뷰 논문)들은 서양과학사의 성과를 한국적 관심에서 리뷰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독창적인 연구 논문과 2차 문헌들에 대한 분석적 리뷰를 구분했던 과학사학회지의 정책으로 리뷰 논문들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 종설들은 당대 서양과학사학계의 동향에 대해 비교적 국내 독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국문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리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서양과학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례로 마술과 과학에 대한 이범의 종설은 사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주제이지만 학문적 유용성이 큰 과학혁명기 연구들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²² 또한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실린 종설들은 당시 과학사 학계의 중요한 논의나 기술사, 혹은 STS와 같은 인접 학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하며 서구과학사학회 내에서의 방법론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국내 서양과학사 분야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과학사와 과학기술학의 관계에 대한 홍성욱의 종설은 이 두 분야의 접점을 보여주는 주요 연구들을 소개해 준 한 예라고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기술사학과와 과학사학계의 제도적 분리로 과학사학회지에서 서양기술사에 대한 논의는 소수였지만, 이두갑, 전지형의 기술결정론에 대한 종설은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2000년대 초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²⁴

서양과학사는 또한 한국에서 문화로서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지닌 이들, 특히 과학의 진흥이나 대중과학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적, 문화적 자원을 제공해주었다.²⁵ 특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논의를 추구하는 학계와는 달리 대중적인 차원에서 과학자 전거나 과학 교과서, 과

²² 이범, “종설: 르네상스-근대초의 마술과 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15:1 (1993), 97-115.

²³ 홍성욱, “과학사와 과학기술학(STS), 그 접점들에 대한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7:2 (2005), 131-153.

²⁴ 이두갑·전지형, “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학사학회지』 23:2 (2001), 157-179; 홍성욱, “기술 패러다임과 기술혁명, 토머스 쿤과 기술사”, 『한국과학사학회지』 34:3 (2012), 563-591.

²⁵ 김영식, “과학문화에 대한 다각적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24:2 (2002), 238-250.

학과 예술, 과학 박물관 등 과학 문화 일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서양과학의 발전 과정과 개별 과학자들의 성취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과학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과학의 사회문화적 함의, 과학적 창의성에 대한 이해와 과학교육 활동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한 예로 정원의 논문은 과학교육에서 과학사의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사와 과학교육의 생산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²⁶ 또한 최근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움에 관한 신지은의 논문은 과학 박물관을 당대의 문화사에 위치시키며 과학과 문화와의 관계를 논의했다.²⁷ 그럼에도 초기 제도적으로 취약했던 한국과학사학회에서 학문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분야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에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던 학계의 리더들로 인해 그 대중적,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에 비해 대중과학, 과학문화, 그리고 과학교육과 같은 분야들에서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제 학문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그 저변이 넓어졌기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서양과학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과학사 교육은 또한 학부 수준에서 교양 과학사 강의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며 서양과학사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근대과학의 기원으로부터 진화론과 상대성 이론과 같은 과학 분야에서의 혁명적 발전, 그리고 과학과 산업의 관계, 거대과학과 상업화된 과학 등 현대과학의 다양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서양과학사의 주요 주제들은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있게 수강했던 교양 과학사 강의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들이었다. 1980-90년대까지 송상용의 『과학사 중심 교양과학』, 박성래의 『과학사 서설』과 그가 번역한 『과학의 역사』가 주요 대학 교양 과학사 수업의 교재 역할을 해 주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김영식·박성래·송상용의 『과학사』,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김영식·임경순의 『과학사 신론』이 학부 교양 과학사 수업의 교재로 폭넓게 사용되었다.²⁸ 또한 서구 서양과학사의 주요 논문들을 번역하여 편저한 김영식의 『

²⁶ 정원, “연속 개념에 대한 불연속적인 교육 방식의 문제: 수학교육과 수학적 융합의 현황과 사례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5:3 (2013), 521-542.

²⁷ 신지은, “홍미로운 조합: 프랭크 오펜하이머와 익스플로러토리움의 설립”, 『한국과학사학회지』 41:3 (2019), 247-272.

²⁸ 송상용, 『과학사 중심 교양과학』 (우성문화사, 1980); 박성래, 『과학사 서설』 (한국외국어대 학출판부, 1997); 스티븐 메이슨 지음, 박성래 역, 『과학의 역사』 (까치, 1996); 김영식·박성

역사속의 과학』, 『과학과 근대사회』, 그리고 박민아·김영식의 『프리즘: 역사로 과학 읽기』는 과학사 분야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문적 안내서의 역할을 수행했다.²⁹ 2000년대 이후 현대과학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저서로는 임경순의 『20세기 과학의 쟁점』, 그리고 역서로는 김봉국·홍성욱의 『현대과학의 풍경들』을 들 수 있겠다.³⁰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학사 학계가 자생적 학문 수준을 고양시키느라 큰 관심을 두지는 못했지만 소장 연구자들에 의해 서양과학사의 주요 연구들에 대한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다행히 국내에서 과학기술사 교육을 받은 이들의 일부가 활발한 번역 활동을 통해 그 학술적 성고가 높고 대중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서양과학기술사의 저술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국내에서 연구하는 이가 많지 않은 과학혁명기 연구자 정원은 과학혁명에 관한 책을 번역했고, 과학철학자 정동욱은 토마스 쿤의 본격적인 과학사 연구인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소개하기도 했다.³¹ 기술사 전공자인 김명진은 미국 기술사의 고전인 토머스 휴즈의 『현대 미국의 기원』을 번역했으며, 최형섭은 미국 거대과학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한 방대한 전기를 번역하기도 했다.³² 이러한 번역작업들은 대중들과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서양과학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4. 관계맺기의 새로운 전망

한국의 학계에서 서양과학사는 학문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980년대 내내 과학사의 독자적인 학문적 기반, 창의적인 연구

래·송상용 『과학사』 (전파과학사, 2000); 김영식·임경순, 『과학사신론』 (다산출판사, 2007).

²⁹ 김영식, 『역사속의 과학』 (창작과비평사, 1982); 김영식, 『과학과 근대사회』 (창작과비평사, 1989); 박민아·김영식 편, 『프리즘: 역사로 과학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³⁰ 임경순, 『20세기 과학의 쟁점』 (민음사, 1995); 피터 보울러·이완 모리스 공저, 김봉국·홍성욱 외 번역, 『현대과학의 풍경들』 (궁리출판, 2008).

³¹ 피터 디어 저, 정원 역, 『과학혁명: 유럽의 지식과 야망, 1500-1700』 (뿌리와 이파리, 2011); 토머스 쿤 저, 정동욱 역, 『코페르니쿠스 혁명』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16).

³² 토머스 휴즈 지음, 김명진 역, 『현대 미국의 기원』 (나남출판, 2017); 카이 버드·마틴 셔윈 지음, 최형섭 역,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사이언스북스, 2010).

의 토대를 쌓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 연구를 미국과학사학회지인 *Isis*, 영국과학사학회지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그리고 미국기술사학회지 *Technology and Culture* 등에 발표하는 소장 서양과학기술사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과학사 연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서양과학사는 바로 앞의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과 통치, 과학의 사회문화적 함의, 그리고 과학과 공공 및 혁신 정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면서 그 독특한 “관계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 연구와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과학의 위치와 영향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해 왔다면, 즉 서양과학사가 관계맺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형성시켜 왔다면, 현재 서양과학사는 한국과학사 및 한국 STS 연구들과 어떠한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있는가? 거꾸로 지금까지 한국과학사 정립에 서양과학사 연구가 그 근거틀로 작용했다면, 이제 한국과학사 학계 내에서 서양과학사의 역할은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서양의 접점을 찾고 이를 상호이해하는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이 커진 21세기 세계화 시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세계화의 시대,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 한국과 서양의 역사적 상호작용과 접점에 대한 연구로 점차 학문적 관심이 변화해가는 시기, 서양과학사는 한국에서 과학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 학문공동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아가 서양과학사는 한국 사회에서 과학의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함의들을 논의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서양과학사가 세계화 시대 과학사 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한국과 서구 사이 상호 교류의 역사를 이해하며, 한국 과학계에 대한 비판 지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현재 한국과학사학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사학계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한국과학사, 특히 근·현대 한국과학사 및 한국 사례의 분석에 기반한 과학기술과 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이하 STS) 연구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지식과 실천의 체계로서의 과학에 대

한 관심보다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와 그 역할에 대한 비판의 대두, 혁신 및 과학정책과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로의 관심의 변화, 역사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적 이론들과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증가, 그리고 해외의 아카이브에 비해 국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과 같은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사가 독자적 학문으로서 기반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 지평을 확대해가며 한국 사회에서 과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양과학사 연구가 한국과학사 및 STS 연구와 접점을 찾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학계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서구 과학사학계에서 세계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서양과학사 연구와 교육은 한국 과학사 및 한국 STS 연구와 교육에서 그 분석의 시각을 한국적인 특성에 대한 천착을 넘어서서 세계사적 변화의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과 세계화 과정에 대한 서양과학사 분야의 연구들은 국가간 상호교류의 모습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해 주고,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에서의 과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주는 준거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교류에 대한 연구의 모델은 아마 첫 번째로 과학과 제국주의 연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는 서양과학의 확대와 식민지 개척 사이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며 식민지 관점에서 서양과학의 발달을 새롭게 해석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구 사회가 과학의 위치와 역할에 부여하고 있는 여러 지적, 정치적 권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데 기여해왔다. 2015년 과학과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과학사학회지 특집은 그 논의의 폭이 일본과 관련하여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이의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³

특히 20세기 이후 한국의 현대 사례들에 주목한 한국과학사와 한국 STS 연구들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과학사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최근 서구 과학사학계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과학 활동의 지리적 분포와 그 위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권력의 지정학적 관계에 주목하여 각국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세계화라는 맥락

33 정준영, “식민지와 과학, 그 형용 모순의 관계를 넘어서기”,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199-207.

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에서의 과학의 발전과 그 사회적 역할들을 보다 폭넓은 세계사적 변화의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형섭은 한국에 도입된 서구 기술들에 대한 기존 서양과학사의 전파와 적용, 이전과 같은 분석들을 비판하며 이의 재해석을 촉구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또한 서구와 비서구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을 지역적 맥락에서 새롭게 살피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³⁵ 또한 체질인류학의 역사에 대한 현재환의 분석은 탈식민지 이후 미국의 유전학계와 국내 체질인류학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유상운의 최근 연구는 20세기 중·후반 미국국방연구시스템이 한국에 이전되고 그것이 한국의 연구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³⁶

자본주의와 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 서구 과학사학계의 관심도 국내 서양과학사 및 STS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볼 만한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군의 과학사학자는 무엇보다 과학의 근대적 형성이 산업혁명, 제국주의의 팽창과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학이 전세계적 위계질서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³⁷ 2018년도 *Osiris*의 과학과 자본주의 특집호 편집자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과학의 발전이 21세기 부의 격차가 극심해진 사회와 세계화된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세계화된 과학기술-기반의 산업계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³⁴ John Krige, *How Knowledge Moves: Writing the Transnational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David Livingstone, *Putting Science in Its Place: Geographies of Scientific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³⁵ Hyungsub Choi, "The Social Construction of Imported Technologies: Reflections on the Social History of Technology in Modern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58:4 (2017), 905-920.

³⁶ 현재환, "'지방차(地方差)'와 '고립(孤立)'한 멘델 집단(Mendel集團)':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345-382;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2020), 163-185.

³⁷ Andrew Cunningham and Perry Williams, "De-Centring the 'Big Picture':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and the Modern Origins of Scienc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26:4 (1993), 407-32.

있다고 역설한다. 다국적 제약산업에 의한 생명자본주의적 임상연구와 생물자원 이용에서부터 담배와 화학 산업이 어떻게 위험과 규제에 대한 무지를 사회적으로 생산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거대 정보통신 산업과 인공지능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이윤 추구를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오용하는지 등의 문제를 과학지식 생산의 기저에 있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에 대한 천착을 통해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³⁸ 헌법상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하에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한 과학사적 분석은 자본주의 정치경제 하에서 나타난 세계화된 지식생산의 분업화의 역사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는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시도에 머물러있지만,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최근 사례들에 대한 깊이 있고 비교사적인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이론적 기여는 서양과학사, STS를 전공한 학자들의 또다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동아시아의 사례를 통해 위험과 재난, 생명과학, 환경,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비교사적 접근을 취하고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는 것도 한국에서 서양과학사가 세계화 시대 과학사, 넓게는 과학학 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구와의 학문적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cosmopolitan)이고 보편적인 과학의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개별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화 과정에 핵심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서양과학사 역시 각국사의 맥락을 넘어서는 보다 지구화된 차원의 과학사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니 이제 서양과 한국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보다는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까운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 과학(global science)의 상호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분석틀이 모색되길 기대해본다.

³⁸ Lukas Rieppel, Eugenia Lean, and William Deringer, "Introduction: The Entangled Histories of Science and Capitalism," *Osiris* 33:1 (2018), 1-24.

³⁹ Buhm Soon Park, "Making Matters of Fraud: Sociomaterial Technology in the Case of Hwang and Schatten," *History of Science* 58:4 (2020), 393-416; 이두갑, "중독의 신경과학과 자유 의지, 그리고 법적 책임: 한국 담배 소송에서의 금연과 중독," 『한국과학사학회지』 41:3 (2019), 273-312.

5.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은 한국과학사학회에서 이루어진 서양과학 관련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가며 학계의 논의를 풍부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학사학회에서 서양과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국 및 서구 과학사학과와 그 인접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몇몇 방향에 대해 저자의 관심사와 제한된 지식에 바탕해서 간략하게 논의했다. 사실 이러한 논의들을 위해서는 학계의 폭이 넓고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서구의 수많은 과학사 연구의 전모를 소개하고 논의했어야 했는데 이 글은 그러하지 못했으며, 때문에 이 글은 서양과학사가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략히 서양과학사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서구의 과학사 연구는 여전히 방법론에서의 혁신,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접근법의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⁴⁰ 우선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론적 변화들과 실행들을 다양한 방법론과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폭넓은 지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위치시키며 과학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는 작업들은 여전히 과학사 분야의 중요한 작업으로 남아있다.⁴¹ 또한 서구 과학사학계는 과학과 환경, 젠더와 장애(disability)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들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들 분야에 있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⁴² 그리고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과학과 대중, 과학과 예술, 과학교육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을 분석

⁴⁰ Peter Bowler and Iwan Rhys Morus, *Making Modern Science: A Historical Surv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⁴¹ Peter Galison, "Ten Problem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Isis* 99:1 (2008), 111-124.

⁴² Naomi Oreskes and Erik M. Conway, *Merchants of Doubt: How a Handful of Scientists Obscured the Truth on Issues from Tobacco Smoke to Global Warming* (New York: Bloomsbury Press, 2010); Londa Schiebinger, "Feminist History of Colonial Science," *Hypatia* 19 (2004): 233-254; idem, ed., *Women and Gender in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2014).

하는 역사서술방법론에서의 혁신들을 통해 과학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 왔다.⁴³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현대과학사의 여러 연구는 과학기술 혁신과 상업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들부터 연구윤리와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STS 연구의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새롭게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⁴⁵

지난 시기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는 이처럼 과학사의 다양한 흐름과 세계 학계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러 학술적이고 사회적인 접점을 만들며 보다 폭넓은 학문적 지평을 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점차 서양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의 기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우선 해외 자료에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의 성과를 익히고 이에 기반하여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료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례에 대한 연구와 출판에 대한 지원, 특히 한국에서 한국과학사, 그리고 동아시아 과학기술사를 지원하는 한국학 관련 국가 기관들과 D.Kim Foundation과 같은 재단들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다른 학계와 관계 맺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동아시아 과학사와 STS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그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서양과학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통해 서양과학사가 하나의 지역적 구분에 기반한 과학사 연구가 아닌 새로운 과학사 연구의 대안으로 세계 과학사(global history of science)라는 통합된 모습으로

43 James Secord, *Victorian Sensation: The Extraordinary Publication, Reception, and Secret Authorship of Vestiges of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Julia Voss, *Darwin's Pictures: Views of Evolutionary Theory, 1837-187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44 Karl Grandin, Nina Wormbs, and Sven Widmalm, eds., *The Science-Industry Nexus: History,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2004); Daniel J. Kevles, *The Baltimore Case: A Trial of Politics, Science, and Character* (New York: Norton, 1998); Doogab Yi, *The Recombinant University: Genetic Engineering and the Emergence of Stanford Bio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45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교육, 연구되면서 한국 과학계의 특징과 비판, 대안들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서양과학사 연구가 세계화 시대 한국에서의 과학사 및 STS 연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구와의 상호교류, 한국 과학계의 비판과 대안 지점을 찾으며 한국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대해 간략한 논의를 해보았다. 앞으로 저자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전망을 지닌 서양과학사 연구와 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투고: 2020년 11월 16일, 심사 완료: 2020년 12월 21일, 게재 확정: 2020년 12월 25일)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Western Scienc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Work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YI Doogab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surveys some of the key works in the history of western science in South Korea, mainly focusing on the articles and review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It intends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Science in 1960, to reflect on some of the shifting scholarly trends featured in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and to discuss a few fruitful scholarly avenues for historians of western science in South Korea. Written from a perspective of a Korean historian of ‘western’ science, it further considers some of the meaningful engagements with a wider community of science studies scholars in South Korea and beyond.

Keywords. history of western scienc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Science,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global science